

尙火 詩와 方言*

李 相 揆**

1. 問題의 提起

詩人은 언어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詩를 구성하는 하나의 詩語를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보다 정확한 의미로 표현하기 위해 새로운 시어를 창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언어 형식인 회화적인 기호나 그림까지 활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시인만이 이 세상 사물의 존재 본질을 드러내 줄 수 있는 권능을 가졌으며, 또한 사문의 존재를 현현한 그들의 言語를 詩라고 말한다.

향토색이 짙은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을 많이 활용하여 1920년대에 주로 시작을 발표했던 尙火의 시작품을 白基萬(1951)이 처음으로 詩全集으로 엮은 이후 시전집으로 여러 차례 간행된 바 있다. 李相和는 호가 尙火(無量, 想草, 白)이며, 1901년 대구 중구 서문로 2가 12번지에서 태어나 1922년 『백조』 창간호에 <말세의 희탄>, <단조>라는 작품을 발표하여 문단에 등단하였다. 1941년 『문장』 폐간호에 <서러운 諧調>를 마지막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의 작품 활동을 통해 일제 저항 민족 시인으로 치열

* 본고는 2000년 『경북대학교 학술재단』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하게 생을 마감한 시인이다. 尙火가 대구방언을 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한 이는 많으나 이를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체계화한 연구는 아직 없다. 특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李相和 詩全集이나 詩集류를 보면 작품 가운데 방언으로 된 詩語를 표준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방언 자체의 정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하여 본래의 시가 가지고 있는 맛깔과는 전혀 다른 표준어로 변형시켜 놓은 오류들이 너무도 많다.

상화가 남겨 놓은 작품은 아직 완전하게 다 발굴되지 않았다. 이기철(1982)은 상화가 남긴 작품 시 63편(동시, 시조, 영시 포함), 장편소설 1편, 문학평론 7편, 서한 감상 수필 기타 15편, 단편번역 4편, 장편번역 1편으로 전집을 꾸민 바 있다. 이상화의 時調로 알려진 “66. 풍랑에 밀리던 배”와 “67. 無題”라는 작품은 상화 작품이 아니다. 곧 전자는 鄭의 작품이고 후자는 徐敬德의 시조 작품이다. 『문장사』, 『형설출판사』, 『문학세계』 등의 작품집에서 이들 작품을 실은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필자가 조사한 결과로는 상화가 남긴 시 작품은 총 65편(詩 58수, 英詩 1수, 翻譯詩 3수, 詩歌 1수, 時調 1수, 校 1수)인데 이번에 새로 번역시 2편을 발굴하였다.¹⁾ 그러나 白基萬의 「작품과 고인」이라는 평론에서 “상화가 시가에만 전념하였고 산문은 발표한 것이 많지 않다. 가요로서 드러난 것은 ‘대륜중학교가’와 ‘경주아리랑’이 있고 시조와 한시는 가끔 戯作(戲作)하기는 해도 발표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1925년에는 창작 영시 3편을 발표한 일이 있는데 게재된 지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진술이 신뢰성이 있다고 본다면 상화가 남긴 ‘경주아리랑’이나 영시 번역 등의 작품들이 앞으로 더 발굴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

李相和 시인에 대한 연구사적 성과가 질량적으로 매우 많지만 지금까지 문헌 비평과 분석에 대한 고려 없이 이루어진 해석 작업의 성과들은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텍스트에 대

1) 이번에 필자가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는 영시 번역시는 상화가 Washington Irvin(1778-1859)의 원작소설<斷腸>을 번역하기 전에 역자의 소감을 밝히는 글(『新女性』 18號, 1925년 1월) 앞·뒤에 각각 실린 것이다. 곧 Middleton (1580-1627)의 詩 1편과 Thomas Moore(1779-1852)의 詩 1편 등 2편이다.

한 정확한 판독 작업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작품에 대한 해석 작업을 행해온 국내 문학연구의 종래 방식에 대한 냉혹한 자기 반성적 계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구방언을 모르고는 尙火의 詩를 제대로 감상할 수 없는 것처럼 지방색이 짙은 방언을 많이 활용한 문학작품에 대해서는 그 지역 방언학자들에 의한 텍스트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평과 분석을 거친 다음 문학작품의 개별적, 총체적 해석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무비판적으로 쏟아져 나온 尙火 詩의 교열본에서 나타난 이러한 문제점의 일단을 鄭孝九(1985) 교수는 1926년(개벽 70호)에 연재된(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작품이 시집마다 왜곡된 실상의 예를 9가지 유형²⁾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尙火 詩에 나타나는 方言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이상규(1998, 200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30년대 詩人이나 作家들의 작품 元典에 대한 정밀하고 비판적 텍스트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대 정서법에 맞추어 교열한 시집이나 작품집을 발간할 경우에 오류들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최근에 문학과 어학의 연구 관점을 접목시키려는 몇몇 국어학자들의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어 다행스럽다. 金素月의 詩에 나타난 평안방언에 대한 李基文(1998)³⁾의 연구나 李相和 詩에 나타난 대구방언의 오류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후 李相揆(1998), 李庸 詩에 나타난 함경방언 분석한 郭忠求(1999)⁴⁾ 등의 연구 성과가 있다.

-
- 2) 鄭孝九(1985),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構造詩學的 分析」, 『冠嶽語文研究』 10, p.238 참조.
 - 3) 李基文(1983), 「素月詩의 言語에 대하여」, 『백영 정병욱선생 환갑기념논총』 1, 신구문화사.
 - 4) 金英培(1987), 「白石 詩의 方言에 대하여」, 『한실이상보박사화갑기념논집』, 김용직(1996), 「방언과 한국문학—문학작품에 나타난 문제」, 『새국어생활』 6-1, 국립국어연구원, 李相揆(1998), 「멋대로 고쳐진 이상화의 시」, 『문학사상』 9월호, 문학사상사, 郭忠求(1999), 「李庸岳 詩의 詩語에 나타난 方言과 文法意識」,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화사, 최전승(1999), 「詩語와 方言—'기롭다'와 '한양'의 방언 형태론과 의미론」, 『국어문학 35』, 국어문학회.

문학작품 특히 소설작품에서 향토색이 짙은 분위기를 연출하거나 향토적인 인물의 개성적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역 방언(regional dialect)을 많이 활용한다. 외국의 경우 문학작품에 나타난 방언을 “可視方言(Eye Dialect)” 또는 “文學方言(Literary Dialect)”이라고 하여 小説, 詩 戲曲 등의 작품 속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한 문헌분석을 시도하는 예는 많이 있다.⁵⁾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본격적으로 문학작품에서 사용되는 방언이 등장 인물의 성격이나 지역적 배경과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나 원전에 대한 언어학적 비평 분야는 미개척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활발한 연구가 기대되기도 한다.⁶⁾

현대 작가가 쓴 작품에 나타나는 방언에 대해서는 그 해석이 어렵지 않지만 지난 이전 시대 특히 30년대 이전 시기의 작가가 쓴 작품의 원전을 현대어로 옮기는 과정에 방언의 의미 해석을 잘못하여 원전의 해석을 그르치게 하는 수가 매우 많았다. 따라서 1933년 한글맞춤법 통일안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인 1920~1930년대 작가들의 작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원전 비판을 거쳐야 할 것이다.

陸史의 詩도 주로 1930년대에 각종 잡지에 발표되었으니 발표당시의 원본 詩 語彙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만든 복원본 시집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하는 형식으로 시전집 또는 시선집류가 간행되어 왔기 때문에 발표 당시의 원본시의 모습에서 상당히 벗어난 왜곡된 모습으로 독자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었다.⁷⁾

正書法이 없었던 시기에 특히 방언이 대거로 반영된 작품들에 대한 교

5) Summer Ives(1971), 『A Theory of Literary Dialect.』, 『A Various Language, Perspectives on American Dialect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Paul Hull Browdre, 『Jr. Eye Dialect as a Literary Device』, 『A Various language, Perspectives on American Dialects』,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6) 이러한 측면에서 金完鏞(1996)의 일련의 연구와 선생의 화갑기념논문집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출판사의 성과는 언어연구와 문학연구의 틈새를 좁혀주는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7) 李相揆(2001), 『史 詩에 나타난 安東方言』,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정본을 보다 정확하게 확정하기 위해 원전과의 대교 및 방언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그러한 문헌 분석의 검증은 전제로 하지 않은 문학적 비평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본고가 의도하는 바는 바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개별 작가의 작품의 원전 텍스트를 바로잡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이며, 이와 아울러 國文學 영역과 國語學 영역의 틈새를 잇는 좀 거시적인 목적도 갖고 있다. 詩學이 문학 연구의 주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림 분석이 그림의 구조를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학도 언어의 구조 문제를 다룬다. 언어학이 언어 구조 일반에 관한 학문이기 때문에 시학은 언어학의 한 필수불가결한 분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詩學의 연구 기법들이 반드시 언어 예술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자명하다. 언어학이 언어예술의 모든 영역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이 글은 특히 시를 연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다. 홀랜더가 말한 바와 같이, “문학 연구를 포괄적인 언어학 연구에서 분리시키려 할” 아무 이유가 없을 것이다. 언어학이 시학을 포용할 능력에 대해 아직도 의심하는 비평가가 있다면 그것은 일부 편협한 언어학자가 시에 대해 무능력한 것을 언어학 자체의 부적격성으로 오인한 것 때문일 것이라고 믿는다. 로만야콥슨(1989)의 말처럼 “이제 우리 모두는 언어의 시적 기능에 귀머거리 있는 언어학자나 언어학적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언어학적 방법에 익숙하지 못한 문학 연구자들이 다같이 엄청난 시대 착오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시점”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장한다.

8) 로만 야콥슨 지음/권재일 옮김(1989), 『일반언어학이론』, 민음사 참조.

2. 尙火 詩 語彙에 대한 교정과 오류

尙火가 詩作 활동을 주로 한 시기는 1920년대 국어 “맞춤법통일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의 1차 자료인 肉筆原稿가 거의 전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활자화되어 발표된 2차 자료나 일부에 지나지 않는 肉筆原稿를 합쳐 연구 대상 자료로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改稿過程, 작가의 치밀성의 결여에 따른 誤謬, 조판상의 誤字, 脫字 등의 요인을 고려한 문헌에 대한 정밀한 비평적 분석이 필요하다.

1차 자료인 肉筆原稿가 전부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활자화된 2차 자료인 활자본 문헌을 原本으로 기대지 않을 수 없기도 하지만 그 자체를 原本 텍스트로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먼저 原本을 확정하기 위해 활자본 자료의 誤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네가쓸었나 누가부르드나 답답위라 말을해다오.<빼앗긴들에도 봄은오는가>
『개벽, 청구, 사조사, 정음사, 형설사, 대구문협, 미래사, 고등국어1』

尹東柱와 이육사와 더불어 일제에 항거하는 民族詩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尙火의 수작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 原本의 오류가 그대로 교열본까지 그리고 高等學校 教科書에서까지 답습되어온 대표적인 예가 1)이다. 대구방언에서는 ‘답답다’, ‘답답하다’가 어간쌍형어간을 가진 방언형으로 ‘ㄷ’-정척활용을 하기 때문에 중부방언과 차이를 보여준다. 곧 대구방언에서는 ‘답답-(형용사어간)+-어라(설명형어미)’의 구성으로 ‘답답어라’가 올바른 표현이다.

그런데 중부방언에서 ‘ㄷ’-불규칙활용의 흔적인 ‘우’가 이중으로 들어가 ‘답답위라’로 잘못 표기한 것이다. 곧 방언형으로 ‘답답어라’로 표기되어야 하며, 표준어형으로는 ‘답다위라’로 표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에서처럼 모든 교열본에서 原本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는 고등

학교 각종 교과서에 이르기까지 오류가 고쳐지지 않았다.

- 2) 이世紀를물고너흐는, 어둔밤에서(緋音, 개벽)
물고 넣는(정음사)(문학사상)(형설사사)(대구문협)

2)에서 ‘물어뜯으며, 뒤흔들며 놓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대구방언인 ‘물고 너흘다’라는 어휘를 잘못 이해하여 ‘물고 넣는’(문학사상)(정음사)(형설사)(대구문협)로 교정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 3) 우리는 오늘을지리며, 먼길가는나그넬너라.(마음의 꽃, 백조, 정음사, 대구문협)
☆(문학사상사) / 지키며(형설사) / 기리며(문장)

3)에서 ‘지리다’는 ‘기대하거나 흠모하면서 예찬(禮讚)하다’라는 뜻의 방언형 ‘기리다’가 k-구개음화에 적용되어 ‘지리다’로 실현된 것이다. 이 방언형의 의미가 파악되지 않아 (문학사상사)에서는 뜻을 알 수 없는 未詳의 어휘로 처리하였으며, (형설사)에서는 ‘지키며’로 교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 4) 마음이 막다른 / 날근 췌집에선(單調, 백조, 조선시, 형설사)
뒤집에선(청구, 정음사) / 떳집에선(대구문협)

4)에서 ‘췌집에선’이라는 어휘에서 ‘췌’는 ‘뿔뿌리(茅根)(方藥 8)’라는 기록에서 처럼 풀이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구방언에서 ‘띠’, ‘떼’란 ‘풀’, ‘잔디’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풀로 이은 집’을 ‘띠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닌 ‘췌집에선’을 ‘뒤집에서’(청구)(정음사)로 교정한 것은 잘못이다.

- 5) 벗어리입설로 / 써도는 沈默은 / 追憶의 녹긴窓을 / 죽일숨쉬며 옛보아라.
(單調, 백조, 조선시, 형설사, 대구문협)

병아리(청구, 정음사, 미래사)

5)에서 ‘말을 듣지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의 뜻을 가진 대구방언의 ‘버버리’, ‘병어리’, ‘버부리’, ‘벌보’를 ‘병아리’로 교정한 것은 엄청난 잘못이다. ‘병어리 입술로 / 떠도는 침묵은’이라는 구절을 ‘병아리 입술로 / 떠도는 침묵’이라는 구절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 어찌 가능한 일이라.

6) 濶室갓흔마루삿에누은검은괴의등은, 부드럽게도, 기름저라<가을의 風景>(백조, 조선시, 상고, 정음사, 형설사, 미래사)
고양이(대구문협)

6)‘괴의’에 대해서 『대구문협』 교열본을 제외한 모든 교열본에서는 原本과 동일하게 ‘괴’로 표기하고 있다. 아마 ‘괴’의 방언형에 대한 의미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李起哲(1982:110) 교수는 ‘괴’는 ‘개(狗)’를 잘못 표기한 결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것 역시 전혀 엉뚱한 해석이다.⁹⁾ 대구방언에서 ‘고양이’를 ‘괘이’, ‘괘이’, ‘살쟁이’, ‘살쟁이’ 등으로 실현되는데 이 ‘괘’는 ‘고양이’를 뜻한다. 따라서 7)은 ‘온실 같은 마루끝에 누은 검은 고양이의 등은’으로 해석될 수 있다.

7) 아모래도 내하고저음은미친짓뿐이라 / 남의 쓸뜯는집을 문홀지 나도모른다
(先驅者의 노래, 개벽, 형설사, 문장)
무늘지(문학사상, 정음사) / 문홀지(형설사, 미래사) / 무너뜨릴지(대구문협)

7)에서 ‘문홀지’도 ‘무너뜨리다(倒)’라는 뜻으로 ‘문후다’, ‘문우다’, ‘몽궁다’와 같은 대구방언 분화형이 있다. “우리 집 담도 여러 돌림이 문혀져 시니”(朴新解, 1:10)에서 처럼 ‘문혀지다(倒)’라는 어형이 나타난다. 그러나

9) (韓國方言資料集) 7, 慶尙北道篇, p. 187. 韓國精神文化研究院. 고양이의 방언형 ‘괘’ ‘괘이’(경북) 달성, ‘괘:(경북) 안동으로 분포지역을 밝히고 있는데 ‘괘’형은 구형(old form)으로 경북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방언형이다.

‘남에 끌뜯는 집을 무너뜨릴지 나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무늘지’나 ‘문홀지’로 교정하는 것은 유의어인 방언분화형으로 다시 씀으로써 원래의 시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 8) 아 서리마즌배암가튼이목숨이나마 썩허지기전에 / 입김을 부러너차. 핏물을
 되뤄보자(오늘의 노래, 개벽, 형설사, 문장)
 들어보자(문학사상, 정음사, 미래사) / 드리워 보자(대구문협)

8)의 ‘되뤄보자’라는 어휘는 대구방언에서 ‘드리우다’라는 의미로 ‘디루다’의 권유형이다. ‘디루다’라는 어휘는 경상방언의 영향을 받은 初刊本 『杜詩諺解』에도 ‘드렛다(垂)’라는 어형이 실현되는데 사동형 ‘드리--+우--+다’와 같은 어휘구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형이다. 따라서 ‘되뤄보자’라는 어휘는(대구문협) 교열본과 같이 ‘드리워 보자’로 교정하는 것이 옳다. 이를 ‘들어보자’로 교정한 것은 原本의 의미를 엄청나게 바꾸는 결과가 될 것이다.

- 9) 감음든논쎄에는 청개고리의울음이 잇서야하듯(詩人에게, 개벽, 문장사, 형설사)
 논에게는(문학사상, 정음사, 미래사, 대구문협)
 논물어귀에는(필자)

9)에서 ‘논쎄에는’이라는 어휘는 대구방언에서 흔히 사용되는 어휘이다. 곧 ‘논에서 물을 대는 어귀’라는 의미로 ‘물끼’, ‘논끼’라는 방언형이 사용된다. 곧 ‘논에서 물을 대는 어귀’를 ‘논께’라고 한다. 곧 ‘가뭇이 든 논물어귀에는’으로 교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논에게는’으로 교정한 것은 잘 못이라고 할 수 있다.

- 10) 짚도모르고 쫓도업시 닳는 내혼아(빠앗긴들에도, 봄은오는가)
 셈(한국현대시요람)(정한모, 김용직)
 자깃는생각 짚모를꿈이 그만 하나둘 자자지려는가(病的 季節, 朝鮮文壇)

10) ‘쌈’에 대한 대구방언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쌈’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한국현대시요람)에서 ‘쌈’으로 교정해 버렸다. ‘어떠어떠한 영문’ 또는 ‘앞 뒤의 전후 사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구방언의 이러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쌈’으로 바꾼 것은 잘못이다.

11) 쓴눈물 긴한숨이 얼마나 쌩기에(大邱行進曲, 별건곤, 대구문협)
쌩기예(미래사)

11) 남부지역 방언에서 ‘쌩:다’라는 어휘는 ‘매우 많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¹⁰⁾ ‘쌩기예’라는 原本의 의미를 전혀 다르게 ‘쌩기예’로 왜곡시킨 재미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곧 ‘얼마나 쌩기예’라는 구절이 ‘얼마나 쌩기예’로 변했으니 시의 원의가 완전히 뒤바뀐 꼴이다.

12) 홀아비같이 해매는 바람떼가 한배갓들 구비치네.(病的 季節, 朝鮮文壇)

12)의 ‘갓들’은 “술을 한잔 ‘가뜰’ 따라라”의 예에서처럼 ‘가득’이라는 의미를 가진 대구방언형이다. 그런데 李起哲(1982:187)은 ‘한배갓들’이란 말이 뜻을 “한 배 가득”이라고 해석해서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곧 “앞 뒤 문맥으로 봐서 갑자기 ‘배(舟)’라는 말리 나오는 것도 이상하다. 외려 대구지방 방언에 ‘바깥’을 ‘배갓’이라 하는 것을 따라 ‘한 배갓들(한 바깥을)’ 즉 ‘은 들판을 구비치네’로 보면 어떨지?”라고 밝히고 있으나 의역에 지나지 않는다. ‘한배갓들’은 ‘한 배 가득’으로 해석할 수 있다.

13) 방두쌔살자는榮譽여! 너거든 오지말어라(訪問拒絕, 개벽, 형설사)
방두쌔(문학사상, 정음사, 대구문협, 미래사)

10) 이승재(1992), 「융합형의 형태분석과 형태의 화석」, 주시경학보 p. 64. 10. 참조. 전라방언에서 ‘쌩-(多)’은 기원적으로 ‘쌩+—어(접사)+—어(부동사형어미)#어(有)’가 융합(fusion)하여 형성된 어형임을 밝히고있다.

13) 위의 ‘방두깨’란 대구방언에서 ‘소뽕질’, ‘소뽕놀이’라는 뜻이다. ‘방두깨미’, ‘빵갱이’ 등과 같은 방언분화형이 있는데 이를 국어사전에도 없는 ‘방두깨’로 교정한 교열본은 잘못이다.¹¹⁾ 따라서 대구방언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자칫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예는 적절한 각주를 달아 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곧 미세한 뉘앙스 정도의 차이일지라도 원본 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방언형을 그대로 살려두고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脚註를 달아주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3. 未解讀 語彙 數三 問題

앞에서 상화 시에 나타나는 방언 어휘의 해독상 많은 오류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 가운데 특히 시의 의미를 전혀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 어휘 곧 거의 아직까지 온전하게 해독되지 못한 수삼의 어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1 목거지

상화 시의 어휘 해석에서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목거지’이다. 먼저 상화의 시에서 ‘목거지’라는 어휘가 나타나는 대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1) (韓國方言資料集) 7, 慶尙北道篇, p. 133. 韓國精神文化研究院. ‘소뽕질’에 대한 경북 지역의 방언형은 ‘동도깨비’, ‘동두깨비’, ‘동더까래’, ‘동더깨미’, ‘동디깨미’, ‘동대깨비’, ‘동지깨미’, ‘방두깨미’, ‘방두갱이’, ‘방즈갱이’, ‘방주갱이’, ‘방더갱이’, ‘방뜨갱이’, ‘빵드깨미’, ‘빵주갱이’, ‘빵또갱이’, ‘빵갱이’, ‘새간살이’와 같은 방언형이 분포하고 있다.

14) 낮에도 밤— 밤에도 밤—

그 밤의 어둠에서 스며난, 두더지 같은 산신령은
광명(光明)의 목거지란 이름도 모르고
술 취한 장님이 머—니 길을 가듯
비틀거리는 자국엔 핏물이 흐른다 !

<비음(緋音)>

15)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 피곤(疲困)하여 돌아가려는
도다.

아, 너도 먼동이 트기 전으로 수밀도(水蜜桃)의 네 가슴에 이슬이 맺도록
달려오너라.

<나의 침실(寢室)로>

16) 온몸이 야니 냇조차 깨온—아찔 하여지도록

뼈저리는 좋은맛에 자스러지기는
보기 좋게 잘도자란 果樹園의 목거지다.

<나는 해를 먹다>

'목거지'라는 어휘에 대해 金春洙(1981)는 “이 시는 표현이 모호한 데가
있어 해석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우선 제1연의 “목거지”라든가 제2
연 제1행의 “눈으로 유전하던 진주” 등만 해도 그렇다. ““목거지”라는 말
은 무슨 말인지 의미 불통이고”¹²⁾라고 하여 의미를 해석할 수 없는 어휘
로 다루었다.

역시 『문학사상』에서도 ☆를 표시하여 미상의 어휘로 처리하여 오랫동안
이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해석되지 못했다. 그러나 金容稷
(1974)은 이 처음으로 ‘목거지’는 모꼬지라고도 발음되는 대구 지방의 사투
리로서, “여러 사람이 모여 흥청대는 잔치마당”으로 풀이를 하였다.¹³⁾

이후 李起哲(1982)도 金容稷(1974)의 논의를 답습하여 ‘목거지’를 “饗宴,

12) 金春洙(1981), 「<나의 寢室로>의 내용 전개와 構造」, 『李相和研究』, 새문사. p. 41.

13) 金容稷(1974), 『한국문학의 비평적 성찰』, 민음사, p. 132—133.

잔치마당, 모임”의 뜻을 가진 경상지방의 方言으로 처리하였다.

특히 金容稷(1974)이 ‘목거지’를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으로 확정하는 근거로 38)의 예에서처럼 “잔치, 모임, 宴會”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목거지’라는 어휘에서 ‘목거지’가 발달되었다는 가정 위에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논점은 상당히 실증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17) 두서돌마니 쓰리 婚姻혼 목거지에 내려와서(번역소학, 10-1), 목거지는 조조도 | 레도는 브즈런학교(번역소학, 10-32)

‘목거지 > 목그지 > 목고지 > 목고지’와 같은 변화를 고려하여 ‘목고지’가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을 가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상화 시에 나타나는 ‘목거지’라는 어휘에 대해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을 가진 것으로 해석하는 데 아무도 주저하지 않는다. 나아가서 대학 동아리 학생들이 야유회(野遊會)를 ‘모꼬지’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문제는 상화 시에서 여러 군데 등장하는 ‘목거지’라는 어휘를 일괄적으로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

먼저 14)의 <비음(緋音)>이라는 시에서 “낮에도 밤— 밤에도 밤—/그 밤의 어둠에서 스며난, 두더지 같은 산신령은/광명(光明)의 목거지란 이름도 모르고/술 취한 장님이 머—니 길을 가듯/비틀거리는 자국엔 핏물이 흐른다!”에서 “광명의 饗宴이란 이름도 모르고”라고 해석을 해도 전혀 이미지가 전혀 닿지 않는다. 15)의 예에서처럼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목거지에 다니노라.”에서 ‘목거지’를 “모꼬지, 饗宴, 모임”으로 해석하면 시의 의미가 확연하게 잘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 구절을 “「마돈나, 지금은 밤도 모든 한계에 도달하여 다니노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곧 ‘목전’이라는 뜻으로 곧 대구방언에서 “어떤 일이 임박하여 다되어 가는 상황을” 가르켜 “목전에 다달았다”라고 한다. 바로 이 ‘목전’은 “목+전(前)”의 합성어인데 “전(前)” 대신에 ‘-까지, -꺼지’라는 특수조사가 결합하여 ‘목

거지'라는 단어가 합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어떤 일이 급박하거나 다되어 가는 상황에 이름'이라는 뜻을 지닌 대구방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의 근거를 결정적으로 입증해 줄 수 있는 근거를 16)의 예인 <나는 해를 먹다> 라는 시에서 찾을 수 있다. "온몸이 아니 녀조차 깨온—아찔 하여지도록/뼈저리는 좋은맛에 자스러지기는/보기 좋게 잘도자란 果樹園의 목거지다./"에서 "보기 좋게 잘도자란 果樹園의 목거지다."라는 대목을 "보기 좋게 잘도 자란 果樹園의 饗宴이다."라고 해석할 경우 "보기 좋게 자란"과 "饗宴"이 서로 호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거지'라는 어휘를 일괄적으로 "饗宴, 잔치마당, 모임"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경상방언에서 "목거지 차 올랐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목이 있는 곳까지 차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일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고비.", "어떤 일이 한계에 도달한 고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바로 아직까지 해독되지 못했던 상화 시에 나타난 詩語 '목거지'는 바로 "어떤 일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고비.", "어떤 일이 한계에 도달한 고비."이라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15~17)의 예들의 시에 나타난 '목고지'를 "饗宴, 잔치마당, 모임"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는 고비.", "어떤 일이 한계에 도달한 고비."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매우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헛채, 해채

18)의 '쫓아가다'라는 의미의 '쫓처가도다'를 '쫓겨가도다'로 교정한 것은 잘 못이다. 그런데 방언형 '헛채'를 '海菜'로 자칫 잘못 해석하기가 쉽다. '헛채'는 대구방언에서 '헛추', '힛추'와 같은 분화형이 있는데 '더러운 물'의 의미로 '헛채구덩이'이라면 '더러운 물구덩이' 또는 '시궁창'이라는 뜻이다.¹⁴⁾

14) 金亨奎(1980), (한국방언연구), p. 23, 서울대학교출판부. '해채[hɛtʃɛl](충남, 금산),

18) 아, 가도다 가도다 쫓아 가도다.

잇음 속에 있는 간도(間島)와 요동(遼東)별로

주린 목숨 움켜쥐고 쫓아 가도다.

자갈을 밟으로 햇채물을 마셔도

마구나 가졌더라면 단잠은 엇델 것을—

<가장 비통(悲痛)한 기욕(祈慾)>

이와 같이 경상방언인 ‘햇채’, ‘해채’라는 어휘가 정확하게 해석되지 못함으로 (개벽), (형설사), (정음사), (대구문협), (미래사)에서 간행 한 이상화 시집에 전부 ‘햇채물’을 그대로 ‘햇채물’로 교열하여 ‘海菜물’ 곧 “바다 해조류로 만든 국물”이라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하여왔다.

이 ‘햇채’는 金亨奎(1980)에서 뜻을 밝혀 놓은 ‘수채(下水溝)’의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곧 ‘햇채’란 대구방언에서 ‘햇추’, ‘힛추’와 같은 방언분화형이 있는데 “더러운 개울 또는 시궁창물, 수채(下水溝)”이라는 뜻이다. ‘해채구덩이’라면 ‘더러운 물구덩이’ 또는 ‘시궁창’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진흙을 밟으로 햇채물 곧 시궁창물을 마시더라도 마구나 가졌더라면 단잠이라도 엇델 수 있었을 터인데”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지의 이미지 전개상에도 적합하다.

이와 같이 ‘해채’라는 시어휘에 대한 해석이 불명료함으로써 <오늘의 노래>라는 원전의 시 19)의 대목이 20)와 같이 전혀 시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모습으로 교열된 것이다.

19) 붓그러워라제입으로도거룩하다자랑하는나의 몸은

안홀수업는이괴롭을피하러이즈러

선웃음치고하품만하며해채속에서 조을고있다,

그러나아죽도—

실사이업시을머가는自然의變化가 내눈에내눈에보이고

(경남, 양산, 합천), ‘해추[hɛtʃhu]’(경북, 의성)를 ‘수채(下水溝)’ 항목의 방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늘의 노래>

20) 부끄러워라 제 입으로도 거룩하다 자랑하는 나의 몸은 안을 수 없는 이
 괴롭을 피하러 잊으려
 선웃음치고 하품만 몇 해째 속에서 조을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월 사이 없이 옮겨가는 자연(自然)의 변화(變化)가 내 눈에 내 눈에 보이고
 <오늘의 노래>

21) 부끄러워라 제 입으로도 거룩하다 자랑하는 나의 몸은 안을 수 없는 이 괴
 롭을 피하러 잊으려
 선웃음치고 하품만 하며 시궁창 속에서 조을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월 사이 없이 옮겨가는 자연(自然)의 변화(變化)가 내 눈에 내 눈에 보이고
 <오늘의 노래>

20)은 『대구문인협회』 교열한 것인데 원시의 “선웃음치고하품만하며해
 채속에서 조을고있다,”를 “선웃음치고 하품만 몇 해째 속에서 조을고 있
 다.”라로 전혀 엉뚱하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교열함으로써 시의 문맥이 흐
 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대목의 ‘해채’의 의미를 온전하게 이해한 경우
 21)과 같이 교열할 수 있는 것이다.¹⁵⁾

3) 검아

상화 시에서 비교적 반복적으로 여러 번 출현하는 어휘로 ‘검아’라는
 어휘가 있다. 그런데 이 시 어휘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언급
 하지 않고 쉽게 ‘검(刀)’의 의미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어온 것이다.

15) 이상규(2001), 『이상화 시전집』, 정림사.

22) 아, 가도다 가도다 좃아 가도다.

잊음 속에 있는 간도(間島)와 요동(遼東)별로

주린 목숨 움켜쥐고 좃아 가도다.

진흙을 밥으로 시궁창물을 마셔도

마구나 가졌더라면 단장은 엇땀 것일—

사람을 만든 검아 하루 일찍

차라리 주린 목숨 떼앗아 가져라 !

<가장 비통(悲痛)한 기욕(祈慾)>

23) 어둔 밤 팔없는 돌을 안고서

피울음을 울었더라면 설음은 풀릴 것일—

사람을 만든 검아 하루 일찍

차라리 취한 목숨 죽여버려라 !

<가장 비통(悲痛)한 기욕(祈慾)>

24) 가서는 오지 못할 이 목숨으로

언제든지 헛웃음 속에만 살려거든

검아 나의 신령을 돌맹이로 만들어 다고

개천 바닥에 썩고 있는 돌맹이로 만들어 다고.

<극단(極端)>

25) 헛 웃음속에 세상이 잊어지고

꼬꾸울리는데 사람이 산다면

검아 나의 신령을 돌맹이로 만들어다고

제 사리의 길은 제 찾으려는 그를 죽여다고

<無題>

22)에서 25)의 시에서 나타나는 ‘검’을 과연 ‘刀’의 의미 정도로 해석해도 될 일인가? 22)의 <가장 비통(悲痛)한 기욕(祈慾)>이라는 시의 “사람을 만든 검아 하루 일찍”에서 “사람을 만든 칼아”로 해석해서는 전혀 앞뒤의 이미지 연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 진다.

- 26) 卽熊津고마누르也<용비어천가 3—15>, 고마경 敬<신증유합 하—1>, 고마
건 虔<신증유합 하—3>, 고마흙 歛<신증유합 하—9>, 그고마흐시던바를恭
敬호며(敬其所尊)<내훈 1—37>, 고마온바를보고(見所尊者)<소학언해 3—
10>, 곰웅熊곰비<훈몽자회 상—19>, 곰과 모던변 압과<석보상절 9—24>

상화 시에 나타나는 ‘검’은 단군 왕검(王儉)으로서 거래의 안녕과 번영
을 비는 대상신(神)을 상징하는 것이다. 26)의 예에서처럼 ‘고마’가 ‘고마
> 곰, 검, 감, 금’의 변화를 거치면서 어원이 분화 된 것인데, ‘검’은 동물
로 곰(熊)을 상징하는 토토텐신이며, 지모신(地母神)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6)에서 “고마—곰—熊”로 어형이나 그 의미가 상호 연관성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정호완(1996)은 ‘검’을 ‘玄武’, ‘熊神’ 계열의
물신(水神)으로 이해하고 있다.¹⁶⁾

어떻든 ‘검(儉)’이 곰을 상징하는 상징신(象徵神)으로 해석할 경우 22)–
25)의 예문에서 시구절의 이미지 연결은 매우 순조로워 진다.

16) 정호완(1996), 『우리말의 상상력』, 정신세계사.

참고 문헌

- 김기진(1925), 「현시단의 시인」, 『개벽』 4월호.
- 김은철(1991), 「이상화의 시사적 위상」, 『국어국문학 연구』, 영남대.
- 김춘수(1964), 「이상화론—퇴폐와 그 청산(清算)」, 『문학춘추』9호.
- 김춘수(1971), 「이상화론—나의 침실로를 중심으로」, 『시론』, 송원문화사.
- 金澤東 편(1977), 『이상화작품집』, 형설.
- 김학동 편(1987), 『이상화 전집』, 새문사.
- 김학동(1966), 『이상화』, 서강대 출판부.
- 大邱文協(1998), 『이상화 전집』,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대구문협.
- 대륜고 편(1971), 『嶠南의 은사들』, 『대륜 50년사』, 대륜고.
- 문학사상사 편(1973), 「상화의 미정리작 곡자사(哭子詞) 외 5편」, 『문학사상』10호.
- 문학사상사 편(1973), 「이상화 미정리작 29편」, 『문학사상』
- 머슴우(1988), 「이상화 시어 해석에 문제 많다」, 『신동아』 344호.
- 박두진(1970), 「이상화와 홍사옹」, 『한국현대시론』, 일조각.
- 박철희(1981), 「이상화 시의 정체」, 『이상화연구』, 새문사.
- 白基萬 편(1951), 『상화와 고월의 회상』, 상화와 고월, 청구출판사.
- 백기만(1959), 「상화의 시와 그 배경」, 『자유문학』 32호
- 李起哲 편(1982), 『이상화전집』, 문장사.
- 이상규(1998), 「멋대로 고쳐진 이상화 시」, 『문학사상』 9월호.
- 이상규(2001), 『이상화 시전집』, 정림사.
- 이상규(2001), 「陸史 詩에 나타난 安東方言」, 『어문학』 72, 한국어문학회.
- 李相和(1973), 『상화시선』, 정음사.
- 李相和(1973), 『상화의 미정리 ‘곡자사(哭子詞) 외 5편』, 문학사상 제10호.
- 李相和(1973), 『이상화 미정리작 29편』, 문학사상 제7호.
- 李相和(1985), 『이상화시집』, 범우사.
- 李相和(1988),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문학과 현실사.
- 李相和(1989),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선영사.
- 李相和(199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상아.
- 李相和(199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전집, 미래사.
- 李相和(1992),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시집, 청년사.
- 李相和(1994),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시집, 청목.

- 李相和(1997),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인문출판사.
李相和(1999),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시집, 신라출판사.
이설주 편(1959), 『상화전기』, 씨뿌린사람들, 사조사.
전정구(2000), 『언어의 꿈을 찾아서』, 평민사.
정대호(1996), 『이상화 시에 나타난 비극성 고찰』, 『문학과 언어』
鄭鎭圭(1981), 『마둔나, 언젠들 안 갈 수 있으랴』, 이상화 전집, 문학세계사.
정한모·김용직 편(1975), 『한국현대시요람』, 박영사.
정효구(1985),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의 구조 시학적 분석』, 『관악어문 연구』 10집, 서울대.
조기섭(1987), 『이상화의 시세계 I』, 『대구대 인문학과 연구』, 대구대.